

탐방 대우자동차법우회



◇부산 대우자동차법우회는 지난해 영천 총회사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좋은제품 생산이 곧 수행”

79년 창립...회원 90여명
매달 사찰순례...이웃 돕기도

생산의 일선에서 자신의 정성을 다해 제품을 만드는 것, 그것이 생활불교의 출발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

11년전 70여명의 회원으로 창립된 부산 대우자동차 법우회(회장 권영발)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부처님 제자로서 손색 없는 직장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신생단체다. 작업이 시작되면 바로 열 말소리조차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작업환경 속에서 대우자동차 법우회 회원들은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공부로 수행으로 삼고 있다.

어느덧 10주년을 넘겨버린 대우자동차 법우회는 해마다 창립의 기본으로 새로운 회원들에게 불발을 전하기 위해 여념이 없다. 창립이후 한달에 한번 사찰순례 법회를 통해 부산 경남 일원의 사찰을 빠짐없이 다녀왔을 정도다. 이제는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석을 위해 분기별 법회로 바

꾸어 진행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사찰순례 법회는 90여명 에 달하는 기존회원들의 신령을 경하면서 신입회원들이 사찰에 친근감을 갖게 하고 주지스님 법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자가 되게 한다.

대우자동차 법우회는 16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선승 경봉 선사(주석)가 주석했던 통도사 극락암을 다녀오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중이다. 그동안 소극적으로 진행해 오던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재정적 기반 확립, 불우이웃돕기, 사찰법회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권영발 회장은 “내세울 만한 대외적인 활동은 없지만 회원 한사람 한사람이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을 생산이나 일상으로 이어가는 것이 더 큰 사회적 기여”라고 강조한다. 또 “경제회복의 주역으로 제 몫을 다하는 대우자동차 법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불심·친목 다진 ‘佛音잔치’

대구 찬불가 경연...학생·직장불자등 24팀 참가

“...임에게 아까운 것 없이 무엇이 나 바치고픈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웠노라...”

10여 명의 우바이로 구성된 원만사 불자회팀이 ‘육바라밀’을 부르자 인기그룹 HOT나 잭스키스 콘서트장에서나 들어보지 못한 환호성이 대구 대덕문화의 전당을 가득 메웠다. 대구광역시 신도회가 20일 개최한 찬불가 경연대회이다.

올해로 6회째 열린 이번 찬불가경연대회에는 각 사찰 신도회를 비롯 직장불자회팀, 초중등부팀 등 대구시 직장직능단체와 신행회, 사찰 신도회 24개 팀이 참가해 노래실력을 겨루며 서로 친목과 결속을 다졌다.

6년 전 가족찬불가 대회로 출발했다가 지난해부터 찬불가경연대회로 문호가 대폭 개방되면서 사찰 신도뿐만 아니라 직장직능불자들의 친목과 불심을 다지는 장이 되고 있다. 또 의식용 찬불가는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대중가요처럼 부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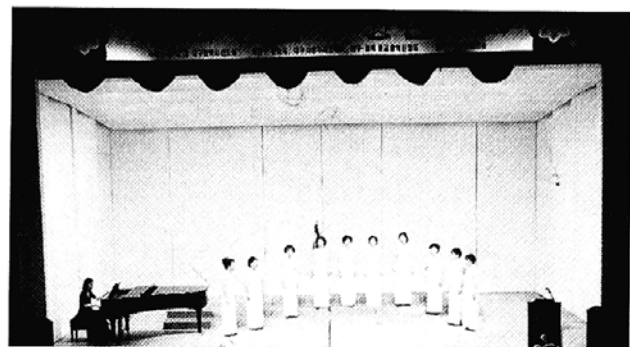
있는 다양한 장르의 찬불가가 다수 소개돼 직장·직능단체들이 찬불가를 배우는 장으로도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날 경연대회에서는 천태종 대성사신도회 이연숙씨가 ‘거룩한 손’을 불러 대상을 차지했다. 입상자 전원은 1년간 대구불교방송에 음성포교

사로 출연하고 각종 불교행사에 초청되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

대구신도회 박진수 사무국장은 “찬불가 경연대회가 해를 거듭해 오면서 신생단체나 직장불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주는 매개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서 “정기법회를 알차게 이끌어주는 견인차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은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대구신도회 찬불가경연대회는 사찰 신도회뿐만 아니라 직장직능단체의 불심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무사고 발원 차량용 목탁 보시

혜은정사·연예인불자협·불자가수회 등 참가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는 자비의 목탁 달아주기 20주년 기념행사가 18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정기와 예식장 앞에서 개최됐다.

혜은정사(주지 혜은)와 연예인 불자협회, 불자가수회, BBS 교통통신원 불자회가 함께 한 이날 행사에서는 차량 운전자의 안전과 양보운전, 명량한 거리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로 3천개의 목탁과 경전테이프 3천개를 배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혜은스님과 가수 김홍국씨, BBS 불자 교통통신원, 혜은정사 신도 등 60여명이 참가했다.

김홍국씨는 “교통사고는 한 개인을 망치고 나아가 가족에게까지 커다란 아픔을 안겨줄 수 있다”며 “자비의 목탁을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운전자들의 마음이 보다 여유로워지고 향기로워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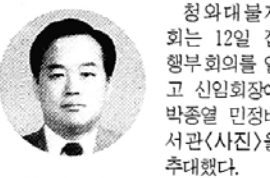
도시철도법우회 창립

서울지하철 5.6.7.8호선을 관장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법우회가 8일 창립됐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법우회는 서울지하철공사로부터 분리돼 나오면서 도통사업소 이정완 소장을 비롯한 70여 명의 불자들이 서울지하철공사 법우회와는 별개로 불자회를 조직해 출범하게 됐다.

법우회는 지하철 구간에 부처님오신날 연등 점등을 비롯 불법전파와 사회봉사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청불회장 박종열 비서관



청와대불자회는 12일 집행부회의를 열고 신임회장에 박종열 민정비서관(사진)을 추대했다.

신임 박종열 회장은 올해 55세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검 형사 제2 부장과 서울지검 제1 차장검사를 거쳐 지난 4월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됐으며 독실한 불자이다.

중앙병원 법당 창립 9돌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 불교법당(지도법사 지흥) 창립 9주년 및 봉축 기념법회가 18일 중앙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사부대중 6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법회는 중앙병원 법우회장 김영태교수의 봉축사와 불광사 주지 지암스님의 법어, 합창단의 찬탄곡, 이란씨의 폐유 신형수기 발표, 심진스님의 환우를 위한 폐유 노래공연, 지흥스님의 인사말씀, 관불의식 등으로 진행된다.

보현가족 군합동 법요식

고양시 재가불자 봉사모임 보현가족(회장 이일삼명)은 22일 부처님오신날 제9보현사단 수석대대에서 한연수 지도법사의 집전으로 군장병 합동법요식을 가졌다.

올해로 3회째 마련한 이날 봉축 법요식에는 인근 30년대 장병들도 동참하는 등 위문법회를 겸해 봉행됐다.

우리 모임에선

우리는선우 자비등 점등

우리는 선우(이사장 박광서)는 불기 2543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8일 서울 장충공원에서 제8회 자비의 등 점등법회를 가졌다.

체육공단 무량회 봉축식

국민체육진흥공단 무량회(회장 이완배)는 20일 올림픽회관 1층 법회장에서 봉축법회를 가졌다. 법회에서 인환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나의 초발심 수행’이라는 주제의 법어를 통해 “부처님 법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일상생활에서 내가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

도록 노력하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량회는 법회 후 올림픽회관-곰말달리-수번루대 산책로-아외미술관-경희의광장-올림픽회관을 코스로 제등행렬을 가졌다.

금융단불교련 합동법회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회장 김운하)는 19일 한국산업은행 32층 강당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합동법

회를 봉행했다.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스님은 법어를 통해 “올바른 마음가짐과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불자로 거듭나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수협·농협중앙회 한빛은행 금융감독원 불교회 등 금융단불자 1백50여 명이 참석했다.

포천불청 봉축행사

포천군 불교청년회(회장 이규호)는 15일 포천군민회관에서 ‘우리도 부처님같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연등축제를 가졌다. 군악대와 연합합창단의 공연으로 막을 연 이날 연등축제는 육법공양, 개회식에 이어 봉축 법요식과 포전을 시가지 연등행진으로 진행됐다.



고산스님, 영등포교도소 위문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19일 영등포교도소를 방문해 봉축법회를 봉행하고 재소자 교화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방송용 모니터 설치에 위해 8백만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영등포교도소 방문에는 조계사 주지 지흥스님과 관음회원, 합창단, 불자가수 송준희 남강수 김무한씨 등이 함께 했다.



수안스님 에세이 ‘참종다...’ 출판회

수안스님(통도사 측사암) 그림 에세이 《참종다 정말 종구나(늘푸른소나무 권)》 출판기념회가 19일 출판문화회관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개그맨 전유성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김영수 출판평론가를 비롯 이양희 지민련 부대변인, 한인현 서양화가, 주명덕 사진작가 등 사부대중 8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사암련 5·18 영령 천도제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천운)는 16일 망일동 5·18 신묘역에서 5·18 민주영령 천도제를 개최했다.

광주불교사암련 회장 천운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야만 민주와 정의를 의치다 가진 민주영령들을 위로 할 수 있다”고 법문했다. 이날 천도제에는 현지(송광사 주지) 성호(관음암주지) 백상(천룡사주지) 해광(용화사주지)스님과 광주광역시 고재유시장, 5·18유족회 정수만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장군 불교연합회 장학금 전달식

기장군 불교연합회(회장 정암)는 15일 기장군청 대강당에서 기장군민 화합과 발전을 위한 봉축대법회와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정암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모두 마음의 동물을 밝혀 무명과 번뇌를 소멸할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스님, 기장군 불교연합회 회장 정암스님, 최현동 기장군수를 비롯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Advertisement for 'Seungbo Construction' (성보건설)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building and text in Korean. The text includes '4대째 이어온 1백년 전통의 가업', '국내 최초 문화재관리국 등록업체', and '12년간의 연구를 통해 세계최초의 황금기와 발명 동광기와'. Contact information for Daegu and Ulsan branches is provided at the bottom.